

예 배	일 시	장 소
주일예배	주일 오후 1시 50분	예배당
청년 큐티 나눔	금요일 오후 9시	Zoom
한민 말씀방	매일	카카오톡

주일 예배 봉사위원

	03. 20	03. 27	04. 03
대 표 기 도	노지민 성도	김복자 권사	정용현 집사
성 경 봉 독	노지민 성도	김복자 권사	정용현 집사

환영 : 예배를 위해 교회를 방문하신 분들에게 하나님의 평화가 넘치기를 기원합니다.

예배 안내 : YouTube에서 „브레멘 한민교회“ 검색하세요.

교회소식

3월 축복인사 - 위기를 견딘 당신은 꽃보다 아름답습니다(성도 간에)
이 자리에 있는 나를 사랑해(자신에게)

1. 사순절 기간(3월2일~4월14일) 동안 경건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2. 특별헌금 - 우크라이나를 위한 구제금을 모금합니다(20일 주일)
기도로 준비해주십시오.

3. 코로나 대응 - 규칙을 숙지하고 지켜주십시오(Luca 확인)

교회 내 교제가 제한되고 있으나 성도 간 격려와 돌봄에 힘써 주십시오.

교우동정

생일	

지난주통계

주일헌금	
감사헌금	
십 일 조	
합계(Euro)	

브레멘 한민교회

Bremen Han-Min Reformierte Kirchengemeinde

“서로 격려하고 축복하는 교회(히10:25)”



믿음의 부요를 보이고
소망의 기쁨을 나누며
사랑의 배려를 나타내는 교회

담임목사 이 상 호 (Sang Ho Rhee)

예배반주 이 세 현

교회 : Anna-Stiegler-Str. 124 28277 Bremen

전차 (Tram) 4번 / 버스 (Bus) 22, 29, 51, 52번

정거장(H) : Kattenturm-Mitte



<http://www.brehanmin.de>

주일 예배 Gottesdienst 2.사순절

- 찬 양 Gemeindelied Liebevoll 찬양팀
 송 영 Chor 반주자
 기 원 Altargebet 이상호 목사
 신앙고백 Glaubensbekenntnis 사도신경(새번역) 다같이
 찬 송 Gemeindelied 209장 다같이
 기 도 Gebet 황희순 집사
 성경봉독 Predigttext 눅 19 : 15 - 19(신p128).....황희순 집사
 (Lukas 19:15-19)
 교회소식 Information & Begrüßung(새 가족 환영)..... 이상호 목사
 헌 금 Gemeindelied zur Kollekte 이상호 목사
 설 교 Predigt 충만함을 바라보라..... 이상호 목사
 * 파송찬양 Gemeindelied 선한 능력으로 다같이
 * 축 도 Segnungsgebet 이상호 목사
 * 송 영 Chor 반주자

*** 표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 헌금은 예배 전 입구에서 봉헌해 주세요.

† 다음 주일 기도 담당 : 노지민 성도

† 기도제목

1. 예수님만 온전히 바라보면서 충만한 삶을 살게 하소서
2. 한민교회와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생업에 기름 부어 주소서
3. 우크라이나와 세계 평화와 경제 안정을 위해
4. 김선택, 장보경(형가리) 선교사의 가정과 사역을 지켜주소서

눈물의 사람이 되게 하소서

언젠가 한 출판사에서 인터뷰를 하자고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첫 질문이 “건강해 보이시는데 그 비결이 무엇입니까?”였습니다. 딱히 비결이 없었기에 농담 삼아 ‘운동이 있다면 때때로 심장운동을 한다고나 할까요’라고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심장운동은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성경공부나 설교를 준비할 때 필요한 성경 구절들이 착착 맞게 찾아지면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모릅니다. 또 내 잘못이 말씀의 빛에 날날이 드러날 때 참회의 눈물이 시야를 흐리게 하는데 소리를 내진 않지만 내 심장은 고요하지 못합니다. 나는 이것을 심장운동이라고 말합니다. 실로 눈물은 내 심장을 운동시킵니다.

눈물은 내게 위로가 되기도 하고, 힘을 주기도 하며, 무지개를 보여주기도 합니다. 눈물 때문에 내가 살기도 하고 내 마음이 녹여지기도 하고, 기도가 되어 영적인 위로와 힘이 됩니다. 눈물의 사람이 될 때는 강박한 마음이 되지 않는 것도 느껴집니다. ‘눈물의 사람이 되게 하소서’ 이는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드리게 내 기도 제목 중 하나입니다.

나는 “사람이 낙천적으로 살지 왜 눈물 이야기를 하느냐?”라는 질문도 받았습니다. 그러나 눈물의 사람이 되게 해 달라는 것은 비관적으로 슬픔에 젖어 살자는 말이 결코 아니라 예수님이 우셨던 것처럼 눈물의 사람이 되어 하나님을 가까이 모시게 해 달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존하면서 살게 해 달라는 말입니다.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 故 방지일 목사
 (1911년 5월 ~ 2014년 10월)

* 교회를 평온하게 하는 가장 좋은 길은 교회의 순결을 유지하는 것이다. - Matthew Henry(영국 신학자, 1662~1714)